

[로스쿨 합격기]

당신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정 민 영

- 1985년 4월 생
- 부산동여자 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I. 솔직한 이야기를 시작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잠시 멈추고 싶은 지금, 1년 하고 6개월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소식을 들은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남들처럼 정의로운 변호사가 검사가 되겠다는 생각 보다는 전문대학원이라는 이름에 마음에 사로잡혔고 그렇게 로스쿨 수험 준비과정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로스쿨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분명 힘든 시간이었고 지금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스물 일곱, 지금 저는 이 곳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꿈이 생겼습니다. 법이라는 매력적인 학문을 접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고민하며 밤낮을 설칠 때도 많았습니다. 힘들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의 길을 한 발짝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II. 로스쿨을 시작하게 된 이유

저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입학은 의류학과로 했으니 의류학 2년, 전과 후 행정학 2년을 공부한 셈입니다. 고심 끝에 전과를 했지만 대학생활에서 전공에 대한 깊은 열정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경영학, 경제학, 철학, 법학 등 다양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법을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법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할 때 쯤 지도 교수님께서 로스쿨에 도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하셨습니다. 법학에 대한 막연한 흥미는 로스쿨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로 다가왔고, 그렇게 저는 로스쿨 입시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II. 로스쿨 수험 준비과정

1. 정량평가

(1) 학점

저는 똑똑한 아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실합니다. 놀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 포기할 줄 압니다. 대학생활에서의 학점은 어디서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학점과 실력은 비례하지 않지만 적어도 성실함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깐요. 지금 학점을 취득하고 계신분이라면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학점의 수혜자입니다. 좋은 학점입니다. 로스쿨입시에서 다른 평가 요소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학점이 좋았던 것이 합격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학부생이시라면 좋은 학점을 받기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2) 공인영어점수

비단 로스쿨 입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평생을 따라다는 것이 영어입니다. 로스쿨 입시에서는 토익, 토플, 텡스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리트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영어 점수에 대한 압박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영어성적은 미리 받아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리트 시험 후 마지막 기회였던 토익 시험에서 겨우 900점을 넘겼습니다. 너무 가슴 졸이는 시간이었기 때문

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미리 영어성적을 취득해 두는 것이 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토익, 토플, 텡스 중 가장 단시간에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토익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영어 문법과 기본기가 약한 저로써는 LC 만점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영어시험에서의 고득점은 이미 많은 방법들이 알려져있지만, 제가 많은 도움을 얻은 LC 공부방법은 바로 받아쓰기입니다. 모의고사 문제집, 그리고 테일을 수백번 반복해서 청취한 결과 듣기 점수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RC 문법문제는 만점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는 것은 무조건 맞추는 전략을 세웠고, 여기에 오답노트를 활용했습니다. 시중에 파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서 시간 안에 풀고 틀린 것을 오답노트에 정리하여 하루에 20분씩 체크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독해역시 문제유형을 파악하고 답을 빠르게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궁극적인 영어실력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로스쿨 준비기간 안에 영어점수를 단기간에 올리려면 전략적인 득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먼저 읽고 나서 거꾸로 답을 찾는 독해를 하면 정답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영어점수는 미리 받아 놓으면 다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득점을 취득해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법학적성시험

어떤 시험이나 꾸준히 하면 점수가 오르기 마련이겠지만 리트는 단시간 내에 성적을 끌어올리기 쉬운 형태의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 다독을 통한 깊이 있는 사고에 익숙하다거나, 소위 머리 좋다는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유리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저는 똑똑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학적성시험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성적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을 등록하였지만, 학원 보다는 스터디를 통해 공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나 리트와 유사한 유형의 시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리트에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언어이해

언어이해 시험은 1교시에 치러집니다. 80분 동안 3문항 정도의 어법 문제와 열 개가 조금 넘는 지문으로 구성된 언어이해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시험입니다. 길고 난해한 지문 속에서 짧은 시간에 긴 지문의 핵심어를 찾아내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수능 언어문제로 언어이해 시험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학, 비문학 지문을 골고루 수록하고 있는 수능기출문제는 엄선된 만큼 명쾌했으며, 언어에 대한 감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후 리트 1회 기출 문제를 풀고 5월부터는 MEET.DEET 언어추리 기출 문제와 PSAT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기출문제를 푸는 가장 큰 장점은 앞서 수능 문제에서도 알 수 있었던듯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출제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언어 실력을 정확히 테스트해보고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월이 되면서부터의 고민은 정확도 보다 미처 보지 못한 지문의 개수였습니다. 머리는 이해하는데 아직 제 눈과 손은 시간에 쳐져서 마지막 2-3 지문을 시간 내에 보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안은 문제를 받자마자 난이도를 검토하고 가장 어려운 지문은 마지막에 문제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우선 문제의 편제를 알 수 있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한 지문에 배당하는 시간 역시 조절할 수 있어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현격히 줄었습니다.

어법의 경우는 외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를 만들어 매일 반복적으로 눈으로 익혀 두었습니다.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어휘어법에 관련된 책을 기본서로 하여 틈틈이 암기했습니다. 저는 '언어이해 어휘어법특강'이란 책을 구입하여 오답노트와 병행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어휘어법의 경우 긴 문장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풀고 지문을 보는 시간을 보다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추리논증

2교시에 치러지는 추리논증은 110분 동안 35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여유있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나 추리논증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도 접근 방법조차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리논증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빠른 풀이 방법을 단 시간에 찾는 것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추리논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리트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어떤 유형에 자신이 강하고 약한 것인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수리추리에 강점을 보였기 때문에 언어추리나 논증파트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철학과과목인 논리학 수업을 청강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논증 문제를 퀴즈문제 풀듯이 흥미롭게 대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런 군에 속하

지는 못했기 때문에 기본서를 구입하여 추리논증에 대한 이해를 기르도록 노력했습니다.

4월에는 기본서 구입과 학원 동강으로, 6월에는 PSAT 기출문제를 풀면서 추리논증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PSAT 추리논증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PSAT은 검증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답풀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SAT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 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7월부터는 학원 모의고사와 시중에 파는 실전문제집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키웠습니다. 이때 저는 이미 풀었던 문제를 다시 꼼꼼이 체크하는 것을 병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추리논증 과목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추리논증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법률과 관련된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도의 법적 지식을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문 대부분이 독해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사전지식이 있다면 접근이 한결 수월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법 지문만을 모아놓은 문제를 풀이하는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몇 개의 지문이 점수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 관련 지문을 수록한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3) 논술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의 논지를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논술역시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힘든 과목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스터디를 통해서 충분히 실력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글을 잘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2009년 4월부터 수험기간을 시작했고, 논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2-3 개월 정도였기 때문에 다독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능 논술 수험서로 지문의 핵심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스터디를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입시 문제와 리트 기출문제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문제로 글을 쓴 후 교수님께 첨삭을 받았습니다. 첨삭과 더불어 스터디원들의 글을 읽어봄으로써 다양한 사고를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편씩 문학, 비문학, 신문 칼럼 등의 내용을 요약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문의 핵심내용을 빠르게 읽은 뒤 질문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야 말로 리트 논술을 접근하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내용 요약 연습이야말로 논술공부를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2. 정성평가

리트 시험이라는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저는 곧 정성평가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량평가가 서류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기는 하지만 정성평가야말로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 자기소개서

1) 개성과 진솔함을 담은 것

천편일률적인 자기소개서를 몇 개씩 읽는 교수님 입장을 생각해보신다면, 개성과 진솔함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로스쿨에 뽑혀야 하는가?’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내가 왜 이 학생을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법체제와 로스쿨의 다른 큰 특징은 전문화와 특성화입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을 지원하는 학생들 역시 자신의 경험, 학부의 전공, 관심 분야 등을 법학과 접목시켜 자신의 비전과 전문성을 자기 소개서에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내용의 참신함과 진실함, 그리고 나만의 개성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첨삭

스터디를 하고 있다면 스터디원들에게, 글을 잘 쓰는 지인이 있다면 지인에게 자기소개서를 보여주고 반드시 피드백을 받을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스터디원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첨삭 받아서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해 나갔습니다. 처음에 개성이 없던 제 글이 몇 명의 손을 거쳐 가면서 더욱 나다운 자기소개서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의 지인들은 객관화된 제 모습을 평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피드백을 거친 자기소개서는 보다 정교해지고 객관화되는 것 같습니다.

(2) 면접

면접은 다양한 사고력, 비판력, 논리력, 순발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통해 실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면접공부와 스터디를 통한 면접공부를 나누었습니다. 혼자서는 리트시험 이후, 하루에 1시간씩 신문을 읽었습니다. 신문은 체계적이고 풍부한 언어를 구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결과 부산대는 시사적인 이슈들을 묻는 경향이 강해서 유레카라는 잡지를 통해

1년의 시사 쟁점과 주요기사를 스크랩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스터디를 통해서 일주일에 3번씩 모여 집단토론과 개별질문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시중에 파는 면접 대비서의 중요한 논점을 정리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문제를 푸는 시간과 답변을 하는 시간 모두 실전 시험과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은 이미 가고자 하는 목표대학을 정했을 것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 맞는 맞춤형 면접스터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을 2주 남겨 둔 기간에는 동영상 녹화를 통해 말하는 태도 등을 고치는 등 형식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영상 녹화는 긴장하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좋은 방법 인 것 같습니다.

(3) 스터디의 중요성

정량평가와 정성평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스터디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다른 생각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일으키는지 경험해본 저로써는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법학적성시험, 자기소개서, 면접은 어떤 스터디를 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만큼 스터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III. 못다한 이야기

로스쿨에 입학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게 법이라는 학문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힘든 만큼 너무나 매력적인 학문이기에 감히 로스쿨에 도전하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법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게 되고, 따뜻한 세상의 도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게 됩니다. 저와 같은 비법학 전공자라면 짧은 시간에 많은 법 과목들을 흡수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비법학 전공자 분들은 그리고 합격의 소식을 들으실 여러분들은 꼭 예비로스쿨 과정을 들으시고 법학입문서적을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한 가지 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들어와 여기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밀도 있게 공부하시면 훨씬 가슴벅찬 나날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걱정보다는 가슴이 더욱 설레는 나날입니다.

당신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난 지금입니다.